

대화만으로 車 전반 컨트롤... 안전의 대명사에 '친절' 플러스



볼보 XC40

연식 변경... 티맵 2.0 탑재
길 안내 등 다양한 기능 실행
젖은 노면에도 안정성 탁월

‘안전의 대명사’ 볼보가 더욱 친절해졌다.

XC40에 탑재해 “아리아볼보 행사장으로 가자”고 말하자 “운전하느라 고생하셨어요.”라는 멘트와 함께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설정되고 오늘 날씨 등을 설명해준다. 이어 스스로 에어컨 온도를 맞추고 응원하는 야구팀의 선발 투수 등 정보를 들으며 주행을 이어간다. 이는 운전자가 별도로 차량 공조장치나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만지지 않고 음성만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 볼보 5~6년 전까지만해도 볼보 차량은 단순히 안전한 차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전 친절함까지 더해졌다.

지난 13일 강원도 고성에서 진행된



볼보자동차 XC40 B4.

볼보 미디어 시승행사에서는 연식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차량의 디자인과 제원보다는 첨단 기술을 입힌 차세대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2.0(이하 티맵 2.0)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티맵 2.0은 18일부터 티맵 1.0이 설치된 모든 볼보 차종에서 OTA를 통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이날 시승은 볼보 SUV 라인업 막내 XC40 B4 모델로 강원도 고성부터 인제까지 왕복 약 12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실외 디자인 등에 큰 변화가 없었던

타에 차량 주행 전 큰 기대감은 없었지만 운전석에 탑승해 시동을 건 뒤 모든 게 바뀐다. 차량과 몇마디 대화만으로 모든 인포테인먼트를 컨트롤할 수 있었다. 특히 티맵 2.0 업데이트로 추가된 개인화 루틴 기능은 불친절한 수입차의 선입견을 깨웠다. 개인화 루틴은 AI 비서 서비스 '누구(NUGU)'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미리 설정한 명령어 한마디만으로 목적지 길 안내와 음악 재생, 차량 제어 등 운전 중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명령어 하나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볼보자동차 XC40 B4 실내모습.

다. 매일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능도 설정할 수 있다. 또 서울에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기반으로 실시간 신호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디오북 '월라'와 웹 브라우저 '비발디' 등도 탑재됐다.

1시간 20분 가량 주행하는 동안 ‘안전한 차’라는 이미지와 함께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친절한 차’라는 느낌이 들었다.

볼보의 강점인 안전함도 즐기기에 충분했다. 시승 당일 오전부터 이어진 굵은 빗줄기에 젖은 노면을 주행하기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노면을 안전하게 움켜쥐고 달리는 느낌이 들었다. 볼보의 반

자율주행 기술인 파일럿 어시스트2 기능은 안전한 주행을 도왔다.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제어해주고 설정한 속도로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줬다.

또 XC40은 순수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197마력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 조합을 통해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주행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B4 엔진은 최고출력 197마력과 최대토크 30.6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48볼트 배터리가 약 14마력의 출력을 추가 지원해 주행 성능이 민첩하게 느껴졌다. 운전자가 필요한 만큼 빠르게 반응하며 막내지만 터프한 주행성을 뽐냈다. 다만 트렁크 용량이 425L라는 점에서 패밀리 SUV로 선택하기 다소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승을 끝내고 XC40이 국내 출시된 지 5년이 흘렀지만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외부 디자인 등 큰 변화를 시도하기 보다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하나씩 바꿔나가는 모습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트랙스 크로스오버, CUV 트렌드 주도 ‘스타일·승차감·안전성’ 소비자 열광

6개월만에 누적판매 1.5만대 돌파
쿠페형·넓은 공간 등 상품성 탁월

한국지엠(GM)이 올해 3월 출시한 웨보레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국내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CUV 세그먼트에서 1위를 달성하며 출시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존 경쟁 모델들과 달리 뛰어난 상품성을 앞세워 라인업이 감소되고 있는 세단 자리를 완벽히 대체할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출시 전 실시한 사전계약에서 1만 3000대를 기록했으며 실제 누적 판매 대수는 지난 8월까지 1만 5246대를 기록했다. 이는 사전계약 이후 소비자 이탈로 판매량이 감소하는 차량과 달리 소비자들의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급 경쟁 CUV인 르노코리아의 XM3가 8월까지 올해 누적 판매량 6322대에 그쳤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한국지엠의 해외 판매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 7월 2만 2375대가 해



한국지엠 웨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ACTIV.

외로 수출되며 국산 승용차 중 유일하게 2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같은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인기는 SUV와 세단의 중간 형태로 SUV 수준의 다목적성과 공간활용성, 세단의 스타일과 승차감을 제공해 젊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UV 모델임에도 준중형급바디를 갖춰 넓은 실내공간과 적재공간을 확보했다. 지붕이 날렵하게 떨어지는 쿠페형 스타일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강조한 것이 젊은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데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또 기본 모델 외에도 RS와 ACTIV

트림의 디자인을 달리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모델을 선택할 수 있으며, 2700mm의 넓은 휠베이스를 적용해 넓은 실내 거주공간과 뛰어난 주행 안전성까지 챙겼다. 인테리어 역시 운전자 중심의 플로팅 타입 8인치 컬러 클러스터와 11인치 컬러 터치스크린이 연결된 듀얼스크린 구성으로 최신 트렌드를 따르며 세련미를 더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나아가 최근 급감 중인 세단 라인업까지 대체할 전망이다. 다만 출시 초기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양성운 기자

제네시스, 글로벌 판매 100만대 돌파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글로벌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출범 이후 올해 8

월까지 국내 69만 177대, 해외 31만 8627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총 100만 8804대를 판매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11월 국내 최초의 럭셔리 브랜드로 탄생한

지 7년 10개월, 누적 판매 50만 대를 넘어선 지 2년 3개월 만에 일군 성과다.

제네시스 차종 중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2016년 출시된 G80로, G80 전동화 모델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서 총 39만 738대가 팔렸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美 워즈오토 ‘10대 엔진’ 수상

아이오닉6 전동화 기술력 입증
“배터리-전기트레인 최고 수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완성차의 전기차 격전지로 꼽히는 미국서 전동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차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에 탑재된 동력 시스템이 미국의 저명한 자동차 매체로부터 2년 연속 최고 10대 엔진에 선정된 것이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6의 동력 시스템이 미국 자동차 매체 ‘워즈오토’가 선정하는 ‘2023 워즈오토 10대 엔진 및 동력 시스템’을 수상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아이오닉5에 이은 2년 연속으로 10대 엔진에 선정되면서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고 자평했다.

10대 엔진 및 동력 시스템 평가는 워



현대차 아이오닉 6

즈오토가 1995년부터 매년 선정한 것으로, 세계적인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자동차 파워트레인 기술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며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밥 그릿징어 워즈오토 편집장은 “아이오닉 6은 뛰어난 효율과 함께 어떤 속도도로도 극한의 가속이 가능하다”며 “배터리-전기 파워트레인에서 명백한 최고 수준이며, 2년 연속으로 선정될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성운 기자

LG, 실무형 AI 전문가 육성 팔 걷어

‘에이머스 해커톤’ 통해 실무 역량 ↑

LG가 올해에도 청년 AI 전문가들을 대거 양성해냈다.

LG는 16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LG에이머스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LG 에이머스는 AI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해 3기까지 6000명에 달하는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청년 진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올해에도 수료생 중 10여명이 LG 계열

사에 입사했거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커톤은 LG에이머스 마지막 일정이다. 주어진 AI 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해결하며 실력을 뽐낸다. 참가자에 참가에 앞서 ▲전통적인 통계 기반의 접근 방법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AI 기술 ▲해커톤 문제를 풀기 위한 도메인 지식 등 국내 최고 AI 전문가들의 핵심 이론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에는 ‘온라인 유튜브 채널 제품 판매량 예측을 위한 AI 모델 개발’을 주제로 747개팀 1424명 중 예선을 통과한 43개팀 108명이 본선에서 실력을 겨뤘다.

/김재용 기자 juk@